

호주 멜번에 ‘전주 장승’ 들어선다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분관 요청으로 멜번에 김종연 목공예명장 파견... 닉 리스 시장, 감사 표명

호주 멜번 코리아타운에 전주지역 목공예명장이 만든 장승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문화세일즈외교의 일환으로 최근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분관(총영사 이창훈) 측의 요청을 받아 호주의 대표도시인 멜번에 김종연 목공예명장을 파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종연 명인은 멜번에서 2주간 머물며 전통 장승을 제작하고 있으며, 장승은 약 3미터 크기로, 지난해 9월 3일 멜번시에서 공식 지정 승인한 힐리스 레인(Healeys Lane) 코리아타운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종연 명인은 또 지난 24일에는 닉 리스(Nick Reece) 시장의 초청을 받아 멜번시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닉 리스 시장은 “전주에서 온 명인에 감사드리며, 멜번에 장승을 보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장승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한국에 왔다는 느낌을 갖게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식과 K-음악이 있었다면, 이제는 K-공예품도 멜번에서 볼 수 있게 돼 뉴욕이나



전주시는 문화세일즈외교의 일환으로 최근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분관 측의 요청을 받아 호주의 대표도시인 멜번에 김종연 목공예명장을 파견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한인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다양한 문화화자산을 활용해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도시마케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문

화세일즈외교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이탈리아 피렌체에 한식 명인과 소리꾼을 파견하고, 중국 청다오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을 파견했다. 이어 올해는 호주 멜번에 목공예명장을 파견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해외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의 초청행사에 음악인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호주 멜번과 그간 예술놀이분야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멜번 시의회에서 전주를 방문하는 등 공식적인 교류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오는 5월 펼쳐지는 ‘전주세계문화주간’ 테마곡으로 호주를 선정, ‘전주 호주문화주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호주의 대표도시인 멜번에 장승을 설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장승이 향후 양도시의 교류를 위한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두고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멜번시는 호주의 문화교육스포츠의 중심지로, 영국의 글로벌경제분 석센터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선정한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위기 여성 권익 보호 협력

전주연탄은행 · 전주시역 6개 여성권익시설과 업무협약

전주시가 위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 전주시역 6개 여성권익시설과 위기 여성 보호 체계 강화 및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전주연탄은행, 전주시 여성 권익보호 정책에 헌신해온 6개 기관이 여성권익보호 체계 강화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위기 여성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주연탄은행의 생필품 등 복지지원 지원 △여성권익시설의 위기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참여기관들은 여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8개 기관은 지역사회 위기 여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복지지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서로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애써온 전주연탄은행이 전주시 여성권익보호정책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시 여성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2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설공단, 챗지피티 활용 보고서 작성 교육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챗지피티(ChatGPT) 활용에 적극 나섰다. 공단은 2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임직원들이 최신 인공지능 도구인 챗지피티를 활용해 효율적인 문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글진흥원 김경수 교수가 이날 강사로 나서 보고서 작성의 핵심 원칙과 챗지피티를 활용한 실전 보고서 작성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오

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챗지피티를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임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챗지피티 등 최신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단 임직원의 보고서 작성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사 · 수강생 간담회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진열)는 지난 25일 202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사 및 수강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자치위원, 자치 프로그램 감사 및 수강생 등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각 프로그램 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겪은 어려움과 개선점을 공유하며 수강생의 만족도 향상과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숙 효자4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감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은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전주시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5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5층 공유공간에서 '2025년 상반기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전주시청소년안정망 및 학교밖청소년지원 중점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심의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상반기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한 청소년 34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학업·건강·자립 등 현금 급여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5층 공유공간에서 '2025년 상반기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필수연계기관(교육복지+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시설,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업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사회관리를 진행하면서 특별지원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안정망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주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